

2007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

정해년, 과학기술 르네상스를 열다

글 | 편집실

지난 1월 5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신년인사회에서 한명숙 국무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주요 국정과제로 내걸고 출범한 참여정부가 마지막 1년의 결실을 거두는 데 주력할 키워드로 ‘우주’, ‘인재’, ‘여성’ 세 가지를 꼽았다.

한 총리는 “10년, 20년 후의 국가 미래를 대비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산업을 주도할 성장엔진을 창출할 것”이라며 먼저 “우주 발사체 기반기술 확보, 인공위성 독자개발과 우주센터 건설을 가속화하고 2008년 4월까지 한국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하는 등 독자적인 우주개발 능력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개회인사를 하는 채영복 과총 회장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으로 선발된 고 산, 이소연 씨와 함께 식장에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한 한 총리는 이어서 “미래 첨단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힘쓰고, 초·중등 과학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돕고, 과학기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여성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의지도 밝혔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김우식 과학기술부총리, 오 명 단국대학교 총장(전 과학기술부총리), 서상기·김영선·김희정 의원 등 정부·국회·과학기술계 주요 인사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한편 채영복 과총 회장은 개회인사를 통해 “지식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급격히 증대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 과학기술인이 변화의 중심에 서서 이를 주도해 나가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김인강, 박동수, 이효철, 김빛내리 교수가 ‘젊은 공학상’을 수상했고, 한민구, 이종원, 이화섭 박사가 ‘한국공학상’을 수상해 참석자들의 축하를 받았다.

‘과학기술 르네상스를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한국 최초 우주인 선발과 관련한 전시회도 열리고, 김희정 상명대 교수가 부른 ‘희망의 나라로’ 축가에 이어 김우식 부총리 및 권이혁 과총 명예회장의 건배재의로 희망으로 여는 신년인사회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㉞



친애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과학기술인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과학은 언제나 미래 비전을 밝혀주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연말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선발에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큰 관심은 바로 과학에 대한 우리 국민의 희망과 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세계 11번째 수출 3천억 달러 성과를 이뤄낸 것도 과학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경쟁력도 2005년 16위에서 2006년 12위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는 모두가 그간 우리 과학기술인 여러분이 애써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

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먼저, 과학기술 혁신정책과 국가연구개발의 총괄 조정을 위한 창조형 국가기술혁신체계(NIS) 구축에 힘썼습니다. 지속적인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부를 부총리 부처로 격상시키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는 등 그 책임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목표로 핵심 원천연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각국은 지식기반경제에 맞춰 자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와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 등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수립된 중장기 과학기술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국가 과학기술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그 동안 연구개발투자를 매년 확대하여 왔고 올해에는 9조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10, 20년 후의 국가 미래를 대비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미래 산업을 주도할 성장엔진을 창출할 것입니다. 우주 발사체 기반기술 확보, 인공위성 독자개발과 우주센터 건설을 가속화하고 2008년 4월까지 한국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하는 등 독자적인 우주개발 능력도 확보하겠습니다. 미래 첨단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힘쓰고, 초·중등 과학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진출을 돕고, 과학기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과학기술인 여러분!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서 진정한 선진 대한민국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혁신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난해 전국민에게 충격을 준 황우석 교수의 줄기세포 파문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학기술인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기술개발에 진력해 오셨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 없이 우리는 목표에 다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가 바로 여러분의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올 한해도 더욱 정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정해년 새해 우리 과학기술계가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과학기술인 여러분 모두 새해에 더욱 건승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